

# “'96년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품목으로는 반사경, 롤러, 솔레노이드, 하네스 등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협의회가  
지난 10월 11일,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개최 -

정리: 연정희 기자

정부에서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부품 소재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품소재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은 현재, 공용화 추진대상 자본재산업에 대해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술인력, 투자 등에 비해 소량다품종의 생산체제를 표준화, 공용화함으로써 국산화를 추진, 원가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조기에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학기기부문의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품목으로는 복사기(드럼 등 6종)와 쌍안경 등이 잠정적으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복사기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를 위한 추진협의회가 지난 10월 11일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개최 됐다.

이날 있는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협의회에는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홍구학 사무관 ▲공업진흥청 기계금속 표준과 민경기 기계주사 ▲(주)신도리코 이성근 전무 ▲코리아제록스(주) 김세용 상무 ▲(주)롯데캐논 이인영이사 ▲현대전자산업(주) 강남훈 상무 ▲대우통신(주) 이상우 차장 ▲한국광학기기협회 홍계인 전무, 김영균 부장이 참석,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이날 있는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협의회의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홍계인 전무 : 최근 정부에서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부품, 소재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본 회에선 국내 복사기업계의 의견을 들어 지난 8월, 복사기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 추진의사를 통상산업

부에 보고한 바 있으며, 공업진흥청의 자본재 표준화 대상품목 수요조사에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복사기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협의회가 지난 10월 11일,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96년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품목을 선정했다.

따라서 오늘은 복사기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하오니, 참석자 여러분들은 기탄 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학 사무관 : 금번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사업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인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품, 소재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은 가능업종을 생산자단체가 선정하고 관련업체가 주도하여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추진상의 제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자본재 표준기획단(단장, 공진청장)을 구성하고 7월에 통상산업부에서 부품, 소재표준화 및 공용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에는 제1차 부품, 소재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회의를 개최, 업종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선발 공용화 추진업종(조선기자재) 추진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학기기부문에서는 지난 8월 20일, 공용화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26일, 복사기, 쌍안경을 공용화 대상품목으로 잠정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광학기기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협의회에서는 향

후 ▲ 모업체와 부품업체간 공용화 대상 모델 발굴 및 사례 연구 ▲ 부품업체 실태조사 및 개발대상 품목 선정 ▲ 개발대상 품목 확정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공용화 부품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홍계인 전무 : 통상산업부에서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사업의 추진경위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은 공업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경기 주사 : 우리청에서는 지난 7월 부터 4천 여개의 업체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대가품목 수요조사를 실시, 현재까지 8천 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향후 5개년에 걸쳐 연

도별로 대상품목을 고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협의회에서는 복사기 부품 중 표준화 및 공용화가 가능한 것을 검토하여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계인 전무 : 다음은 광학기기 협회 김영균 부장이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복사기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의 필요성과 추진상의 문제점, 지원 방안 및 추진단계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균 부장 : 부품공용화는 서로 다른 모델의 제품간에 부품의 규격, 성능을 통일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업체내의 제품간에 이루어지는 소극적 공용화와 서로 다른 업체와 제품간에 이루어지는 적극적 공용화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복사기업체들은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전문기술인력과 투자 대비 다품종 소량생산인 점을 감안,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로 ▲ 국산화 및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 부품생산 및 기술축적의 전문화로 해당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리고 ▲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량 증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복사기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용화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제조원가의 절감과 전문업체의 육성 및 개발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공유에 따라 부품업체의 기술을 일정수준 이상 제고시킬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한편 복사기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 국내업체의 독자적인 설계제작 및 생산능력 부족 ▲ 업체간의 상호 신뢰성 및 기술, 정보 교환체제 미구축 ▲ 대상품목 생산규모 경제단위의 미흡 ▲ 각 업체별 생산제품의 고유성 상실 및 기술 노하우 유출의 위험 등으로 각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따른 어려움 ▲ 신제품 개발, 모델 변경시 설계단계에서부터 부품공용화가 고려되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각사에서 신제품 개발은 기업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어려움이 존재 ▲ 공용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유인책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복사기 표준화 및 추진단계와 정부의 지원방안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구학 사무관 : 표준화는 공용화의 전단계로 대상부품의 형상, 성능 등을 통일, 단순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복

사기를 비롯한 광학기기분야는 첨단기술산업이므로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성근 전무 : 복사기부품 표준화는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모이신 분들이 대상품목을 결정하기 보다는 개발부서장이나 연구소장 등의 실무책임자들을 소집, 검토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홍계인 전무 : 제 생각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체로 복사기 개발 및 생산에 다녀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보기때문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구학 사무관 : 공용화는 표준화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표준화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화가 되지 않더라도 공용화 할 수 있는 부품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인영 이사 : 복사기는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된 복잡다양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각사별 또는 생산 모델별로 소요되는 부품이 각기 상이하므로 표준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선 공용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는 반사경과 같이 공통성이 많은 부품의 경우 가능성이 크리라 생각하

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품목 검토는 신도리코 이성근 전무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검토케함이 효율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성근 전무 : 복사기 opc드럼을 공용화 하려면 주변장치, 토너성분 기계특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낫을 것이며 렌즈는 복사속도, 용지크기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봅니다. 반면 반사경이나 롤러, 솔레노이드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사경은 코리아제록스나 롯데캐논이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치수문제일 것이므로 각사 실무자들이 도면을 내놓고 검토, 비슷한 종류를 골라내면 빠르리라 봅니다. 이럴경우 국내 자체 개발제품은 공용화가 보다 쉬운 것이며 일본 도입모델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강남훈 상무 : 부품표준화란 신제품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국산화 차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복사기의 개발을 위해 주요부품에 대한 표준화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가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드럼이라도 표준화가 되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이 아닙니까? 이는 새로운 복사기를 개발할 경우 무엇인가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근 전무 : 복사기는 수백가지 이상의 복잡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드럼 하나를 표준화 및 공용화 한다고 했을때 그에 따른 주변부품, 토너성분 등을 다 바꿔야 하는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렌즈의 경우는 필요시 렌즈생산 전문업체에 의뢰, 국산가능 규격을 제시받아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남훈 상무 : 표준화란 도입모델이 아닌 자체모델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만약 신도리코에서 생산가능한 드럼의 규격을 제시해주면 이를 표준화하여 동규격을 기준으로 여타부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구학 사무관 : 복사기는 아직 대일 수입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고 대체로 합작투자사들에게 업계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드럼과 같이 핵심기능을 지닌 부품보다 비기능부품을 우선적으로 공용화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리라 봅니다.

이성근 전무 : 아직 우리회사에

서도 복사기 드럼이 완전히 국산화 되지 않았기에 지금 시점에 드럼을 표준화 및 공용화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인영 이사 : 드럼은 복사기의 기계구조, 특성 및 토너관계 등 각사의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결집되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쉽게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용 상무 : 제가 생각하기도 처음부터 드럼을 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부품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남훈 상무 : 매년 일본에 로알티나 지불하며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궁극적으로 국내 복사기산업이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없으리라 보기에 이번 기회에, 국내 복사기업체들이 서로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또한 협력을 통한 타개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구학 사무관 : 진정한 공용화가 추진되려면 우선 각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개방하고 제공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상대는 국내 경쟁사가 아니라 해외업체임을 깨닫고 상호 협조 및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이인영 이사 : 반사경, 롤러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월

한 것부터 공용화 및 표준화를 해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물러는 복잡하여 단계적으로 공용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물러 주변 브라케트류를 어떻게 국산화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을 것으로 봅니다. 수량이 적을 때에는 차라리 수입하는 편이 훨씬 생산코스트가 싸게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세용 상무 : 표준화 대상품목을 검토할 경우, 각사 복사기 부품별로 유사한 것들을 선정, 검토했으면하고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품들의 규격을 기준으로 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이성근 전무 : 물러도 기종별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으나 각사 실무자들이 도면을 내놓고 제품 및 생산업체를 분류하며 유사제품들을 통합, 선정해나간다면 표준화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표준화 제품이라고해서 반드시 공용화나 국산화를 시켜야한다면 금형투자비, 생산량, 기술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남훈 상무 : 이성근 전무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복사기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를 추진하자는 것이 아

니겠습니까? 그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근 전무 : 수입품을 공용화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하지만 반사경과 같은 부품은 치수만 조정하면 되기때문에 공용화가 가장 쉬운 부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럼의 경우, 캐논제품은 특허문제까지 걸려있고 복사기 주변기기

및 관련기술 등이 해결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드럼을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 및 공용화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홍계인 전무 : 일본과의 합작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각자 입장차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서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계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의 일류기업들마저 경쟁사들끼리 손잡고 공

정부의 공용화 지원방안

지원단계	지 원 내 용
규격 설정 표준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재 표준화 기획단(단장, 공진청 차장)이 산업기술기반 사업으로 예산 지원</li> <li>• 95년은 품목단체의 자체경비로 추진 '96년부터 예산반영</li> <li>• '96년 예산으로 7억원 확보</li> </ul>
공용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 및 관련부위, 부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규격화, 표준화된 부품의 설계변경과 관련부위, 부품의 설계 변경에 대해 공업발전기금(시제품 개발자금)융자</li> <li>• 표준화 규격 표시품에 대한 정부 관련기관 우선구매(산업표준화법 제33조) 및 검사, 형식승인 면제(산업표준화법 제34조)지원</li> <li>•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준화 규격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격 표시명령제도(산업표준화법 제15조)를 활용하여 공용화 지원 강구</li> </ul>
상 호 구 매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표시원화자금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공용화된 부품도 지원대상에 포함</li> <li>• 공용화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본재는 외화표시원화자금으로 우선지원 및 우수 품질인증 마크획득 지원</li> <li>• 공용화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합병(M&amp;A)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기업합병 지원</li> </ul>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 방안

일 정	추진내용
'95년 10월 11일	복사기 부품 소재 공용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부품 소재 공용화 추진방안(통상산업부) -자본재 표준화사업 추진내용 설명(공업진흥청) -복사기업계 현황, 문제점 및 추진방향 토의 -공용화 추진 실무작업반(부서장급)구성; 완제품 및 부품업체 참여
'95년 11월	공용화 추진 실무작업반 회의 -공용화 세부 추진계획 작성 -표준화 대상품목 현황조사
'95년 11월~12월	업체 현황조사 -업체별 주요 선정 대상부품 규격, 특성 및 조달현황 -외주업체 현황 등
'96년 2월	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부품 확정 -기개발품목의 규격화, 표준화 -표준화 부품 중 미개발 품목의 공동개발 -규격부품 전문 생산업체 선정 -공용화 대상부품 기준 표준화, 공동구매, 상호구매 추진방안 협의

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내업체들도 이제 협조해야 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사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를 검토해 나간다면 국내 복사기업체들도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남훈 상무 : 복사기메이커 각사가 모여 탈일본을 목표로 복사기 핵심기술 및 부품을 개발, 표준화를 추진해나간다면 외형적인 국산모델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국형 복사기

개발은 물론 기술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홍구학 사무관 :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이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인 과제는 아닙니다. 각사의 여건, 기술수준, 투자비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지금부터 기술적인 검토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도 향후 2000~2005년에 일본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부터

서서히 추진해나가자는 뜻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거나 시행하자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학산업분야는 첨단 기술산업분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기대됨과 동시에 산업계의 참여 및 인식전환도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참석하신 각사 여러분들의 말씀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계인 전무 : 꼭 자금지원이 문제는 아니겠으나 우리 복사기업계에서도 무엇인가 공동개발과제를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협에서 통상산업부를 통해 복사기를 비롯한 광학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몇차례 해보았으나 특히 복사기업계에서는 과제도출이 없거나 극히 부진했습니다. 이는 국내 복사기업계가 너무 독자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성근 전무 : 국내복사기업계가 독자적이거나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수입부품이 많고 전반적인 국내 복사기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강남훈 상무 : 앞으로 우리 복사기업계에서는 디지털복사기 개발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계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봄이 어떻겠습니까?

홍구학 사무관 : 현행 정부지원 정책과제가 되려면 자본재산업 육성전략 품목으로 고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 자본재산업 육성전략품목 지원사업에서는 과제, 업체별 대기업을 경우 20~30억원 규모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공동개발을 추진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성근 전무 : 디지털복사기 개발문제는 어느 업체에서는 이미 개발에 착수했거나, 또는 개발이 이미 많이 진전된 업체가 있어 국내업체들 간에도 형편과 여건이 달라 이를 공동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남훈 상무 : 물론 업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으나 합작선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차피 우리가 일본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투자를 시작해야 하리라 봅니다. 2천년대를 대비한 국내복사기업계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바로 디지털복사기이고 또한 2천년대라면 디지털복사기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에서는 이미 아나로그

복사기가 종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근 전무 : 디지털복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다기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나로그기능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쇄출판업계나 광고, 설계분야 등에서는 아나로그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겠으나 대체로 여러가지 기능 중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고가인 디지털복사기가 과연 얼마나 판매될 것인지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홍계인 전무 :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의 주요 결정사항인 복사기 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품목으로 어떤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경기 주사 :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우선 '96년의 복사기 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품목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반사경, 롤러, 솔레노이드라고 여기지는데 어떻습니까?

강남훈 상무 : 드림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성근 전무 : 드림을 공용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단기간에는 곤란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인영 이사 : 드림을 대상품목

으로 선정해야 표준화 및 공용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별 노하우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드림의 경우는 차후로 연기하고 대신 하네스를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성근 전무 : 하네스는 국제규격도 있으므로 표준화가 쉬울 것입니다.

민경기 주사 : 그러면 '96년 복사기 표준화 및 공용화 대상품목으로는 하네스까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홍구학 사무관 : 오늘 이 회의를 통해볼때, 앞으로 복사기부품의 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내복사기업계 중역진들을 중심으로 복사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 사 실무부서장급을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정해진 계획대로 추진해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계인 전무 : 여러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참석해주시고 또한 복사기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